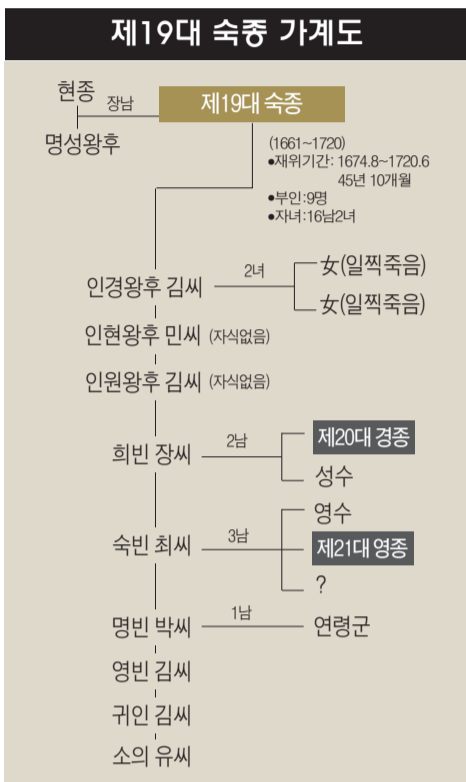


# 여인천하 속 외로운 왕...죽어서도 여인들 틈에



조선왕릉에서 불교를 입다(38)

19대 숙종 - 명릉  
숙종 1661~1720(60세)  
재위 45년 10개월 1674.8(14세)~1720.6(60세)



2계비 인현왕후에서 본 숙종과 1계비 인현왕후.

### 명릉(明陵)은

19대 숙종과 제1계비 인현왕후(1667~1700) 민씨, 제2계비 인현왕후(1687~1757) 김씨의 능이다. 숙종과 인현왕후는 쌍릉이고, 인현왕후는 400m 떨어진 왼쪽 위에 있다. 서오릉 능역 안에 있다. 매표소를 들어서면 오른쪽 외따로 떨어져 조성된 것이 명릉이다. 서오릉=사적 196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 30-1. 면적 182만9792㎡ (55만3512평).

조선왕조 518년, 27대 역대왕 중 숙종 부자가 재위한 기간이 조선 역사의 약 1/5이다. 숙종 본인 45년10개월, 희빈 장씨 소생 아들 경종 4년2개월, 숙빈 최씨 소생 아들 영조 51년7개월, 포함 101년7개월이다. 재위 기간이 길다보니 사연도 많다.

왕들에게는 이름이 많다. 아버지가 지어주는 이름, 승하하면 행적을 기려 바치는 시호(묘호). 무덤의 이름인 능호 등이다. 능호는 모두 외급자이나 태조의 능인 건원능(건릉)하늘의 도, 원나라와 도읍을 처음 세웠다는 뜻만이 두 글자이다. 사도(思悼)는 영조가 세자를 서인으로 폐하여 죽이고 후회되어 슬프고 애처롭게 생각한다고 지은 시호이다. 영조는 역대왕 중 최고 장수였고 재위기간도 으뜸이라 능호를 원릉(元陵 동구릉 소재)이라 했다.

묘호는 왕이 승하한 뒤 이름을 피하여 종묘에 봉안하는 호칭이다. 백성을 두루 살피고 무력으로 난을 정벌한 치적이 뚜렷하면 조(祖)라고 하고, 덕망을 갖춰 성품이 단정하고 지혜, 용기, 너그러움을 겸비한 왕은 종(宗)을 붙였다. 그러나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숙종이 그러하다.

숙종(肅宗)=입속하고 정중하며 덕망을 갖춘 왕이란 뜻인데, 명릉(明陵)=밝고 깨끗한 능이란 말인데, 숙종의 이름은 순(純)이다. 외급자 이름을 쓴 것은 세종부터다. 세종의 이름은 이름은 도(禔)이다. 외자 이름이 아닌 왕은, 단종(純), 철종(胤), 고종(顯) 등이다. 이성계가 이방원은 왕이 되기 이전에 이름이 있었다. 숙종은 현종의 외아들이며, 어머니는 청풍부원군 김우명의 딸인 명성왕후다.

비슷한 영돈녕부사 김만기의 딸인 인경왕후이고, 계비는 영돈녕부사 민유중의 딸인 인현왕후, 제2계비는 경은부원군 김주신의 딸인 인원왕후다. 희빈 장씨, 숙빈 최씨도 역할이 만만찮았던 숙종의 여인들이다.

명릉에 들어서면 능의 배치도 이상하다. 정자각에서 바라보면, 왼쪽 위 외따로 능이 하나 있고 오른쪽 아래 정자각과 균형이 맞는 위치에 쌍릉이 있다. 왼쪽부터 제2계비 인현왕후, 숙종, 제1계비 인현왕후의 무덤이다. 이들을 통틀어 편의상 명릉이라 하는데, 법도에 맞지 않다. 동원이강 양식으로 본다면 서열이 가장 낮은 제2계비가 상석이고 왕과 제1계비가 말석인 셈이다. 유교 풍수 국가인 조선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숙종 왕릉은 쌍릉에 해당되며 왼쪽에 있는 제2계비 인현왕후의 능은 단릉 양식이다. 정자각도 없는 능이다. 사연은 이렇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와글와글해도 정승이 죽으면 상가가 적막한 것이 세상인심이다. 희빈 장씨와 격투를 벌여 중전과 폐서인의 자리를 함께 오간 인현왕후는 1701년 소생 없이 3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남편 숙종이 필필하게 살아 있던 시절이다. 장희빈에게 능력당한 회한으로 왕은 성대히 장례를 치르고 후일 자신도 곁에 묻혔다.

제2계비 인현왕후의 무덤이 외따로 초라한 것은 그녀의 소생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무 오래 살았다. 왕보다 먼저 죽었다면 이상한 곳에 배치하지 않았을 것이다. 숙종이 승하하자 청상과부 인원왕후



벚꽃이 장관인 서오릉.

## 인현왕후·희빈 장씨·숙빈 최씨 등 여인간 쟁투 부각 46년 재위기간 중 대동법 실시 등 굵직한 치적 남겨

는 34세에 왕대비(경종 재위시)에 올랐고 38세 때(영조 재위시)는 자동적으로 대왕대비가 되었다. 손자뻘인 영조와는 일곱 살 연상이었다. 그들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으나 자연스럽지 않은 모습이다. 대왕대비 인현왕후는 1757년 3월 26일 71세로 승하했다. 죽을 자라, 죽을 시기를 잘 찾는 것도 복이다. 인원왕후는 그런 복이 없었다. 영조 33년(1757) 2월 15일, 영조의 원비 정성왕후가 66세로 승하했다. 정성왕후의 국장이 진행됐다. 서오릉 내에 택지된 흥릉의 산릉공사가 거창하게 이루어졌다. 흥릉은 영조가 자신의 수릉을 겸한 곳이기도 국가적 대역사였다. 머느리의 국상 중에 할머니가 될 격 죽는 것이다. 국장을 한 번 치르는 데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들어간다. 인원왕후는 영조의 피가

섞이지 않은 계모에 불과하다. 영조는 대왕대비의 유택을 위해 경비와 인력을 들일 여력도, 의지도 없었다. 별채경비도 아끼고 정자각 건립비용도 생략했다. 명릉 능역 한 모퉁이를 살짝 오르내려 대왕대비를 안장했다. 가장 저렴한 왕릉 공사였다. 그래서 인현왕후의 능은 능호도 없고 정자각도 없다. 숙종시대는 왕의 치적보다 여인들의 쟁투가 더 관심을 끈다.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먹고 먹히는 싸움 가운데 숙종이 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인물들끼리 수차례 출마해서, 1승1패니 2승1패니 하는 통계를 언론이 만들어 호기심을 돋운다. 그러나 왕의 여인들은 모 아니면 도다. 중전이 되거나 아니면 폐서인이 된다. 윤이 나쁘면 사약을 받아야 한다.



무인석의 어깨가 앞으로 굽어있다.

## 미얀마 아신 반딧짜 스님의 정통 위빠사나 수행 강의

미얀마 스님의 유창한 한국말 강의

초보자도 알기 쉽게 위빠사나 수행강의

아신 반딧짜 (Ashin Pandicca)

미얀마, 산도, 칼러 시 출생

- 11세 - 1982년 첫번째 출가 (따웅 부 루 포아)
- 17세 - 1988년 두번째 출가 (몽요아 시)
- 20세 - 1990년 비구제 수계 (몽요아 시)
- 1990~92년 수행명상 센터 (2년간 있었음)
- 1993~96년 강원 (비저다요 강원 몽요아 시)
- 1997~99년 강사 (미아와디민지 강원 만달레이 시)
- 2000년 토굴 생활 (만우원 메이보 시)
- 2001~현재 판야마다 수행 센터 양곤 (주지 지도자 발사 판야마다 수행센터)
- 2002년 다곤 대학 졸업
- 2005년 베타우 불교 센터 건립(불교/한국어)
- 2003~04년 해외포교대학원 졸업
- 2003~08년 조계사 청년회 법회 강의
- 2007년 광주 원가사, 제주 삼방사 법회강의

■ 일 시 : 5월 14일(수)부터 (21일간)  
■ 시 간 : 오후 2시 ~ 4시  
■ 대 상 : 스님 및 재가불자 모두 동참 가능  
■ 동참금 : 5만원  
■ 장 소 : 대한불교 조계종 무주선원 (부산 지하철 3호선 승동역 3번출구 바로 앞) 문의 - (051) 334-8108

대한불교 조계종 무주선원 법/회/안/내

- ▶ 금강경 강의 - 매주 목요일 오전10시~12시, 저녁7~9시
- ▶ 천수경 강의 - 매주 화요일 오전10시~12시
- ▶ 초발심자경문 - 매주 수, 금요일 오전10시~12시

## 세계로 가는 서병후의 불경영어·천수경 수리수리마하수리 THE THOUSAND HANDS SUTRA

Mystical Gateway to Happiness and Enlightenment

책 1권, 오디오테이프 3개포함  
20,000원 → ₩ 14,000원  
저자 서병후 | 156쪽 | A5  
출판사 : 도래미음악출판사

보다 활발한 한국 불교의 해외 포교, 그리고 신세대 지식인들에 의한 넓은 시야의 불교 공부와 수행을 위한 기본적 불경 영어 가이드로서 기획된 이 책은 천수경을 첫 텍스트로 했습니다. 영어화된 산스크리트어는 영어로 다루고, 그 표기도 표준적 국제 시스템에 따랐습니다. 자비와 깨달음의 감로를 내려주시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구원의 염원이 담긴 천수경의 신비스런 비밀공식이 우리를 앞에 펼쳐집니다. 오랫동안 국내외에서 불교를 연구해 왔고, 풍부한 영어교육경험을 갖춘 필자가 선사하는 최초의 영어완역 천수경과 현대적 시각의 주해, 통쾌할 정도로 행간을 꿰뚫는 새로운 해석은 우리들을 감동케 할 것입니다.

온라인 책방 여시아문  
02)737-0695